

사설

미래 대학을 위한 혁신의 길

서울대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대면 학기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교육부도 2학기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험·실습수업의 한계, 교육 양극화, 청소년 심리 발달 저해 등 비대면 학기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기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학교 또한 앞으로의 학기 운영을 다각도로 조망 중이지만 확진자 현황과 백신 접종률을 생각했을 때 당장 다음 학기부터 완전한 대면 학기를 시작하는 것은 다소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학기 정상화를 준비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대학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비대면 플랫폼이 발달하고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미래 대학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래

대학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전공은 융복합 될 것이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평생 교육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 스쿨은 학점도, 전공도, 강의실도 없었지만 다양한 도시에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 하버드보다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됐다. 미 주간지 ‘US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혁신대학 1위로 꼽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AI 튜터를 활발히 이용해 학생들의 역량을 높였다.

혁신을 꿈꾸는 것은 비단 외국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대학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쟁점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기조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보수적이고 변화가 느리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발 먼저 내딛는 사람의 행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선례가 된다.

우리학교는 대학 교육에서 선구자의 위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 교양, 창의성 등 21세기의 인재상으로 꼽히는 것들을 몇십 년 전부터 중시해왔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 화합과 창조를 통한 지구 공동사회 실현 등 폭넓은 시선으로 고유한 학풍을 만들어갔고 온라인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미래 대학을 준비했다.

미래 대학은 더 이상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나이, 국적, 전공,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하나의 대학에서 서로 소통하며 학문적 소양을 키워나갈 것이다. 교양 교육에 관심이 많고 유학생 비율이 높은 우리학교는 국제화와 인문 교양

분야에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부족, 학생들의 소속감 부재,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해선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한균태 총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4차 교육혁명 시대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첨단 기술을 통한 배움의 다양화,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감이 중요해질 것이다. 비대면 학기를 거치며 이른 기술 혁신과 사고의 전환이 미래 대학을 맞이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시봉

사후약방문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군 전역 후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살 대학생 故이선호 씨.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이 씨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가 컨테이너에 깔린 그 날, 작업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가 사망 직전 하던 작업은 평소 그가 수행하던 작업이 아니었지만, 그는 안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 중장비가 사용되는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개방형 컨테이너라면 한쪽 날개가 접한다고 해서 다른 날개가 진동으로 함께 접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씨를 덮친 컨테이너는 사고 발생 8일 전 안전 점검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컨테이너였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깔려서, 끼어서, 치여서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김용균 씨가 입사 3달 만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을 때, 4년 전 이민호 군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프레스에 눌러 세상을 떠났을 때, 5년 전 구의역에서 김 군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졌을 때 우리는 늘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2년 유예된다. 지난해 업무상 재해 사망자 882명 중 714명(80.9% 상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이대로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워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며 “제2, 제3의 선호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더 이상 미흡한 안전 관리, 규정으로 인해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원화 캠퍼스 논란

남겨진 숙제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가 분교에서 이원화 캠퍼스로 법적 통합을 이룬 것이 9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식 변화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도 학생들은 국제캠이 분교로 오기전 각종 기업 채용 사이트나 입시 사이트 등에 건의 메일을 보내 명칭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분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원화 캠퍼스임을 말하고, 국제캠과 서울캠의 차이를 설명한다. 외부 인식에서 통합은 여전히 먼 일처럼 보인다.

취재하면서 이원화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유사학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해당 학부가 아니면 우리학교 학생이더라도 해당 과가 어느 캠퍼스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학부 명칭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

고 비슷한 학부가 서로 다른 캠퍼스에 있어 본교와 분교로 착각하기 쉬웠다. 이는 학부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더욱 문제였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점도 아쉬웠다. 이원화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일부는 인식 개선을, 일부는 서울캠과의 혜택 차별을, 일부는 건물 증축을 주장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뉠수록 각각의 목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캠 학생들의 관심도와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이원화 문제가 가진 핸디캡이었다.

이원화 캠퍼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물론 학교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이원화 캠퍼스의 인식은 학생들 스스로부터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할 때 나아갈 수 있다. 캠퍼스, 학부를 불문한 ‘우리’학교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하나의 목소리로 학교 측의 개선된 대책과 방안을 촉구할 때이다.



양여진

만평 우리는 하나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김가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